

‘골밑대장’ KB 박지수 “통산 블록슛은 꼭 깨고 싶어요”

역대 최다 2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리바운드

이번 시즌 평균 득점·리바운드·블록슛 모두 1위

요즘 여자프로농구는 박지수(KB국민은행)의 독무대로 설명된다.

득점, 리바운드, 블록슛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청주 KB국민은행의 단독 선두를 이끌고 있다.

23경기 연속 더블더블과 역대 최연소 통산 300블록슛 기록을 세우며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씩 장식 중이다.

박지수는 17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26점 18리바운드 7블록슛을 기록하며 팀의 72:67 승리를 이끌었다.

역사에 남을 대기록 두 가지를 세웠다. 우선 정규리그 최다 23경기 연속 더블더블이다.

두 시즌에 걸쳐 2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과 리바운드를 동시에 올린 것으로 종전 트라베사 겐트(신한은행·2005년)의 22경기를 넘어섰다.

또 2블록슛을 보태 역대 최연소 300블록슛 고지를 밟았다. 1998년 12월 6일생으로 22세 1개월 11일 만이다.

종전 최연소 기록은 김단비(신한은행)의 27세 8개월이다. 박지수의 빠른 페이스를 알 수 있다. 300블록슛은 역대 9번째다.

박지수는 “두 기록 모두 정말 기분이 좋는데 특히 최연소 300블록슛이 만족스럽다”며 “프로에 입단할 때부터 수비는 자신이 있었다. 막연하게 블록슛에 관심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것 같아서 납득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평균 23.5점(1위), 14.8리바운드(1위), 2.7블록슛(1위), 4.6어시스트(6위)로 사실상 기록 부문을 독식하고 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평균 23.5점(1위), 14.8리바운드(1위), 2.7블록슛(1위), 4.6어시스트(6위)로 사실상 기록 부문을 독식하고 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비결을 묻자 박지수는 “리바운드는 운이 따라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득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서 “처음에는 더블더블을 해도 ‘그냥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웃었다.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주요 기록을 모두 잡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5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박지수는 정규리그 통산 1943점, 1593리바운드, 300블록슛을 기록 중이다.

통산 득점 1위는 정선민(은퇴)의 8140점, 리바운드 1위는 신정자(은퇴)의 4502개, 블록슛 1위는 이종애(은퇴)의 862개다. “통산 블록슛 기록은 꼭 깨고 싶다”고 했다.

빅맨들은 몸이 과부하가 쉽게 온다. 박지수는 평균 33분59초를 뛰며 전체에서 8번째로 출전시간이 길다.

그러나 박지수는 “경기가 없을 때에는 확실하게 쉬고, 꼼꼼히 관리를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되지 않는다. 구단과 감독님의 철저한 관리와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원동력이다”고 했다.

박지수에게 지난 시즌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8~2019시즌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기대했지만 지난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되면서 종료 기준 성적으로 아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1위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미희기자

박지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휴가를 받았지만 휴가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며 “진부하지만 이번 시즌 목표는 반드시 우승이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1일 우리은행과 5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앞서 2승2패로 팽팽했다.

박지수는 “(김)정은이 언니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다”며 “잘 쉬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대표 주전 센터인 박지수는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한 꿈도 있다.

여자농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박지수는 아직 올림픽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박지수는 “12년 만에 어렵게 땀 올림픽 출전권이다. 올림픽은 운동선수라면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림픽은 꼭 밟고 싶은 무대”라고 했다.



KIA타이거즈 국내 스프링캠프 준비 ‘착착’

광주·함평 불펜에 방한·방풍 시설 완비



KIA타이거즈가 광주와 함평에서 개최할 스프링캠프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IA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KIA 챔피언스 필드(함평) 불펜과 보조구장, 실내연습장에 시공 중인 방풍 및 방한 시설 설치 공사가 이달 말에 완료된다.

오는 2월 1일부터 광주와 함평으로 나눠 스프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인 KIA는 추위는 물론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공사를 벌였다.

우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좌우 외야 끝에 위치한 불펜 2곳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천막을 덮어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 폭설이나 강풍에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진 불펜 내부에는 난방기와 조명을 설치해 실내 훈련에 지장 없도록 했다.

불펜 1곳 당 투수 2명이 동시에 투구할 수 있고, 실내연습장 마운드 2곳까지 합치면 동시에 6명의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퓨처스 선수단의 스프링캠프지인

KIA 챔피언스 필드 1,2구장 불펜 4곳에도 방풍 시설을 설치했고, 보조구장 펜스 전체에 바람막이를 설치해 추위를 대비했다.

챔피언스 필드 불펜은 1곳 당 투수 3명이 동시에 투구할 수 있어, 1,2구장을 합치면 동시에 12명의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있다.

이와 함께 KIA는 광주와 함평 구장의 마운드 흙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인필드 믹스’와 ‘마운드 클레이’로 교체했다. 그라운드 마운드 뿐 아니라, 불펜의 흙도 모두 새로 갈았다.

‘인필드 믹스’와 ‘마운드 클레이’는 기존 마운드의 흙보다 단단해 투수들이 투구할 때 디딤발의 밀립 현상을 저하시켜 힘을 신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KIA 관계자는 “광주와 함평 지역의 2~3월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선수들이 야외에서 훈련하기에는 출기 때문에 최대한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투수들의 요청에 따라 마운드 흙도 교체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손흥민, 도움으로 리그 통산 100번째 공격포인트

전반 5분 선제골 도와...토트넘 3-1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EPL 통산 100번째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17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리몰 레인에서 벌어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시즌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전반 5분 오리에의 선제골을 도우며 1도움을 기록했다.

코너릭 세트피스에서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 오리에의 헤더골을 유도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6번째 도움(12골)이다. 특히 2015~2016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리그에서 기록한 100번째 공격포인트다. 통산 65골 35도움을 기록 중이다.

각종 컵대회를 포함하면 이번 시즌 9번째 도움(16골)이다.

앞서 지난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17라운드에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리그, 컵대회 등 공식 경기에서 통산 100번째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시간에 교체됐다.

오리에의 선제골을 발판으로 토트넘은 3-1로 승리했다.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9승6무3패(승점 33)가 된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리버풀(승점 33)과 승점, 골득실(+16)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렸다. 리버풀이 37골, 토트넘이 33골이다.

토트넘은 오는 29일 20라운드에서 리버풀을 만난다. 선두권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일전이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챔피언십(2부) 소속 위컴을 상대로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2강전을 갖는다.

토트넘은 전반 5분 코너릭 세트

피스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오리에가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도움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골을 위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1-0으로 앞선 전반 7분 헤리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때려 아쉬움을 남겼다. 2경기 연속 골대 불운이었다.

토트넘은 1-0으로 앞선 전반 40분 케인의 추가골로 전반을 2-0으로 앞섰다. 케인은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그의 패스를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해 셰필드의 골네트를 갈랐다.

케인의 리그 12호골로 손흥민과 함께 득점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18라운드에서 개막 첫 승을 신고한 셰필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14분 존 플레이 감각적인 헤더로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을 알렸다.

하지만 토트넘은 더 이상 빈틈을 내주지 않았다.

만회골을 허용한지 3분 만인 후반 17분 탕기 은돔벨레가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3-1 리드를 이끌었다. 페널티박스 왼쪽 지점에서 로빙 패스를 받 바깥쪽으로 때려 골키퍼를 넘겼다. 셰필드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박스 정면으로 쇄도하는 케인을 향해 정확한 땅볼 패스를 건넸지만 케인의 슈팅이 골문을 외면해 추가 도움에는 실패했다.

뉴스

메시, 바르셀로나 데뷔 후 753경기 만에 첫 퇴장

연장 끝 빌바오에 2-3 패배...슈퍼컵 우승 실패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프로 무대에서 첫 퇴장을 당한 가운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수페르코파 우승에 실패했다.

바르셀로나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데 라 카르투하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2020~2021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 2-2로 정규시간 90분을 비긴 뒤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허용하며 2-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이 대회 최다우승팀(13회)인 바르셀로나는 14번째 우승을 놓쳤다.

반면 ‘거함’ 바르셀로나를 잡은 빌바오는 통산 3번째 우승으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11회)에 이어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3위에 올랐다.

전 시즌 라리가와 코파 델 레이(국왕컵) 1, 2위 팀이 출전해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다.

2019~2020시즌 라리가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 준우승팀 바르셀로나 그리고 국왕컵 결승 진출팀인 아틀레틱 빌바오, 소시에다드가 참가했다. 국왕컵은 지난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회 결승을 치르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승부차기 끝에 소시에다드를 꺾고 결승에 올랐고, 빌바오는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다. 허벅지 부상으로 준결승에 결장했던 메시는 이날 선발로 복귀해 앙투안 그리즈만, 우스만 댐블레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다.

수페르코파 최다우승(13회)에 빛나는 바르셀로나의 출발은 좋았다. 전반 40분 메시의 슛이 상대 수비에 맞고

나오자 쇄도하던 그리즈만이 재차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빌바오가 2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나키 윌리엄스의 패스를 오스카 데 마르코스가 마무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2분 호르디 알바의 크로스를 그리즈만이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후반 종료 직전 빌바오의 극장골로 터지며 다시 원점이 됐다. 세트피스 찬스에서 아시아르 비야리브레가 헤더로 바르셀로나 골망을 흔들었다.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간 빌바오는 연장 전반 3분 윌리엄스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바르셀로나를 무너트렸다. 경합 과정에서 빌바오의 비야리브레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주심이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을 명령했다.

뉴스

김하성, 샌디에이고에서도 등번호 ‘7번’

메이저리거가 된 김하성(26)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도 등번호 7번을 단다.

샌디에이고 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하성의 등번호는 7번으로 결정됐다.

2020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했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1일 김하성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7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지난해 샌디에이고에서 7번을 단 선수는 없었다. 2017~2019년에는 마누엘 마르코가 7번을 달았으나 2019시즌을 마친 뒤 댐파베이 레이스로 이적했다.

이 때문에 김하성은 한층 수월하게

KBO리그에서 쓰던 7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를 통해 시카고 컵스에서 샌디에이고로 이적한 일본인 투수 다르빗츠 유는 11번을 달고 뛰었다.

2012~2017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등번호가 11번이었던 다르빗츠 유는 2017년 LA 다저스에서 잠시 21번을 등번호로 사용했고, 컵스에서 뛰던 2018~2020년에는 다시 11번을 썼다.

뉴스